



어버이날 선물



며칠 전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다. 미국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5월에 Mother's Day가 있으니 열 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어버이날은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부모가 살아계시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인데 어쩌다 보니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다. 식사만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현금만 드리기에 성의 없는 것 같고 물건으로 하자니 무엇을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스럽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다. 혼자 고민만 실컷 하다가 '에이 몰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너무 하찮은 건 하기 싫고 그렇다고 대단한 건 할 수 없어서 속이 상했다.

나는 부모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웠고 지금도 좀 그러하다. 어릴 때 부모에게 별거 아닌 소소한 선물을 했더니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나름 내 판에 큰돈을 들여 선물을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비싼 것을 샀냐며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다. 그다음부터는 더 어려워졌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물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모가 되기 전부터 다짐했다. 내가 부모가 되면 나는 자식이 주는 그 어떤 것도 기쁘게 받겠다고. 시늉이라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이다.

자식으로만 살아온 내가 어느덧 부모가 되었고 아이들은 커가며 유치원, 학교, 성당 등에서 뭐라도 만들어서 갖고 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선생님들의 작품이었을 테고 개중에는 허접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는 아이들이 내게 선물이라고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좋았다. 혹시나 잊혀질까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열심히 사진으로 남겼고 종이로 만든 목걸이, 알록달록 비즈 팔찌, 뽀뽀뽀뽀한 손글씨로 쓴 카드 등은 버리지 못하고 여태 간직하고 있다. 엄마에게 선물할 거라며 고사리 같은 손을 꼭지락거리며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을 그 마음만으로도 얼마나 대견하고 감동인지 모른다.

아이들의 선물에는 특유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큰 아들은 아기자기한 애정 표현은 부족해도 그게 무엇이든 최선을 다한 느낌이 들었다. 아들이 마지막 어버이날 주었던 선물을 생생히 기억한다. 고급 초콜릿이 박힌 꽃다발이었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어버이날 선물 중에 제법 고가에 속하는 선물이었다. 아들이 꽤나 자신감 넘치는 뿌듯한 얼굴로 내게 안겨준 그 꽃다발은 아직도 우리 집 선반에 그대로 놓여있다.

둘째의 선물은 우리 집 유일한 딸답게 섬세하고 정이 넘치는 편이다. 손글씨 카드나 편지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안에는 늘 가슴 뭉클한 감사나 사랑 고백이 담겨 있었다. 정성을 담아 뭔가를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제법 솜씨가 좋아서 놀랍기도 했다.

셋째는 평소 가장 애정 표현을 잘하는 편이지만 이상하게 선물을 잘 챙기는 편은 아니다. 선물 값을 아낀다기보다는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거나 미리 준비하지 않는 눈치랄까? 언젠가는 근사한 선물을 할 거라며 호언장담까지 하며 나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막상 당일이 되자 아무것도 없었던 적도 있었다.

넷째는 기본은 하는 스타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만든 작품이나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선물을 주기 한참 전부터 미리 광고를 하기 시작한다. 올해도 "엄마 이번 어버이날은 머그컵을 줄 거야. 하루 전날 완성될 텐데 미리 즐겨? 아니면 기다렸다가 당일날 즐겨?" 이렇게 나는 미리 다 알고 있었다.

아이들의 선물은 다 다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똑 같다. 그 안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선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뭐든 참 기특하고 예쁘다. 아무리 소소해도 좋으니 계속해서 오래오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부담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무겁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내 소관이 아니다.

어버이 마음을 다 헤아리지도 못한 채 어버이가 되었다. 그래서 평생토록 부모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드리지 못할 것이다. 늘 서투고 부족할 것이다. 어버이 노릇을 하는 동안 하나씩 깨닫고 후회하고 감사할 테지만 그마저도 어버이 노릇을 한다는 핑계로 흘려보낼 것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다릅니다.**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아이비만의 노하우를 경험하세요! 실적이 증명합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pay when close escrow)

(* for regular commission rate listing only some terms and condition will applied)

*****시니어 스페셜*****

은퇴후 여유로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새로 나온 리버스 모기지 플랜으로 **여유 자금/현금** 챙기시고
남은 기간 **집페이먼트 없이 다운 사이즈** 하세요~ **지금 상담 하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